유럽 가스대란, '따뜻한 날씨'가 해결한 게 아니다

경제포커스

김홍수
논설위원

재테크 고수를 자처하는 지인이 지난해 미국 천연가스 선물(先物)에 투자했다가 쪽박을 찼다. 현재 수익률은 -78%. 어디서 판단 착오가 있었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천연가스 수송관 밸브를 잠그자, 유럽 전역에서 가스 대란이 발생했다. 공급 부족 탓에 천연가스 가격이 10배로 폭등했다. 천연가스 생산국 미국이 대체 공급자가 될 만한데, 텍사스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터미널이 화재로 마비됐다. 유럽에선 선박에 실려온 LNG를 다시 기화시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 대서양 양쪽에서 LNG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덴 3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세는 그해 겨울까지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였다. 지인이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한 이유였다.

하지만 시장 경제의 역동성은 지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유럽 각국 정부가 가스 수요 감축을 유도하려 가스 가격을 2~3배 올리자, 가정에서 가스 사용량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 알루미늄, 시멘트, 종이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줄였다. 공급 감소분은 시장에서 수입품으로 대체됐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독일은 선박 형태 부유식 LNG터미널을 불과 194일 만에 완공했다. 미국 혁신 기업들은 지상 LNG터미널 대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액화시설을 만들어 유럽으로 LNG를 대량 수출했다. 시장이 놀라운 역동성으로 러시아 가스 공백을 메우자 천연가스 가격은 얼마 안 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 겨울 유럽 가스대란을 막은 것은 '따뜻한 날씨'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 '시장경제 역동성'이 해결사
> 가격 기능이 수요·공급 조절
> 한국 정부는 '가격 통제' 남발
> 결국 비싼 비용 치르게 돼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사 역할을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은 수많은 기업이 제조설비를 갖춰 공급에 나서면서 금방 해결이 됐다. 코로나 백신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속히 생산설비를 갖춰 대량 제조에 나서면서 80억 지구촌 시민들이 두세 번씩 맞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됐다.

경제학 교과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정상 작동하면 경제 문제는 대부분 저절로 풀린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교과서의 상식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 잦다. 주된 이유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치' 탓에 전기료를 5년 내내 묶어놓아 한국전력을 '빚더미'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한다며 최저임금을 마구 올렸다가 '고용 참사'를 낳았다.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해 기름값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우리나라를 에너지 과소비국으로 만들고 있다. 작년부터 정부는 '시장 금리 결정자'가 돼 '관치 금리 시대'를 다시 열었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무시한 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금융 당국은 은행 팔을 비틀어 예금·대출 금리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인위적 금리 통제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미국은 5%대, 한국은 3%대로 역전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촉발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수출기업으로 이전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400억달러 급감하는 등 환율 방어 비용도 막대하다. 금리는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관치 금리는 금리의 가격 기능을 마비시켜 시장의 자정 기능을 훼손한다. 선진국들이 가격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社說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자" 지금 더 절실한 메시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로 대표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新)경영 선언'이 어제 30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시키고 한국 산업계에 일대 충격을 주었던 '이건희 신경영'의 시작이었다.

해외 유명 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교재에도 오른 이건희식 경영의 핵심은 '양(量)에서 질(質)'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것이었다. 대충대충 만들어도 국내에서는 1등이던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2류, 3류 제품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다. 이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사장들을 소집해 격정적으로 쏟아낸 신경영 구상을 계기로 삼성은 '품질 경영'과 '초격차'에 매진했다.

휴대폰 불량률이 11%에 달하자 수백억원어치 휴대폰을 쌓아놓고 '화형식'까지 하면서 최고의 제품에 도전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했다.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도 이처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최고 품질을 만들어낸 신경영 덕분이었다. 질을 위해서는 양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각오했지만 오히려 최고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매출도, 자산도 30년 새 10배 넘게 늘고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의 변신은 다른 대기업과 산업계에도 충격의 파도를 일으켜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중저가 이미지로 통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자신감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만든 변화 이전까지 우리는 2류, 아류 의식에 젖어 있었다. 그 정도가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자'는 이건희 선언 이후 우리는 글로벌 일류 국가를 넘보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한 단계 성장했다.

이건희 신경영이 우리 사회에 던진 통찰과 메시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30년 전 삼성이 느끼던 위기감을 능가한다. 미·중 패권 갈등과 안보 긴장 속에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 격변의 시기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일본, 인도, 베트남 등지로 향하고, 미국·EU·일본이 반도체 자립 등을 위해 다 뛰고 있다. 안으로는 가계·기업·정부 다 합해 5500조원이 넘는 빚더미,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적 현상'으로 고착될 판이다.

30년 전 벼락처럼 던져졌던 이 회장의 선언처럼 지금도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이 절실하다. 나라가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새 질서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모두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일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모두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동영상 사설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이참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시키길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탈퇴까지 할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이 과격 시위를 벌인 산하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대화 기구로, 이듬해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해 왔다. 노조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힌 것은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민주노총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과의 대화 창구도 닫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한국노총 간부처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민노총 집회처럼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서울 도심을 무법 천지로 만드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노조 전임비 갈취, 장비 사용 강요, 폭행·협박 등 조폭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정부와 경찰은 앞으로도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노동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근절시켜야만 한다.

이번 기회에 낡은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이 근로자 위원이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 조건을 양대 노총 대표와 추천자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더구나 양대 노총은 정규직·대기업·공기업 노조 위주여서 이들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MZ세대·여성·비정규직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단과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 대표가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좋길래 소송까지 하나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내분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었다. 상임위원장 7명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자기 당 몫 6명을 확정하지 못해 표결을 못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여야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온 관행을 깨고 상임위 18개를 독식했다. 1년 뒤 여론에 밀려 국민의힘에 7개를 내줘 자리가 줄자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한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원래 2년인데 여야가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한 것부터가 비정상이다. 이번 일도 민주당 쪽에서 정 최고위원을 향해 '왜 당신만 두 번 하느냐'는 반발이 나와 벌어졌다.

소송까지 거론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좋길래 이러느냐는 궁금증도 생기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소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이 상당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 예산·사업 등을 더 따낼 수 있다는 것은 '덤'이다. 특수활동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세비 외에 더 받는 돈도 있다. 국회엔 이런 자리가 한둘이 아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 기관을 꼽으라면 국회가 빠질 수 없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가짜 뉴스 괴담 유포, 입법 폭주, 돈 봉투, 코인 의혹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자리를 서로 하겠다고 소송 얘기까지 한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190]

'시애틀의 영혼'으로 불리는 곳

시애틀은 항공기 제작 회사 보잉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첨단 IT 기업들이 시작된 미국 북서부 해안의 산업도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렘콜하스 설계의 공공도서관과 프랭크 게리 설계의 음악박물관, 스타벅스 1호점, 많은 서점과 카페가 있는 보헤미안 도시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최고 명소는 뭐니 뭐니 해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1907년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애틀의 영혼'으로 불릴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톰 행크스, 멕 라이언 주연의 1993년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후 더욱 알려져, 현재 1년에 1000만 명의 사람이 찾는, 전 세계에서 33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명소가 되었다.

시장은 특유의 북적거리는 생동감으로 현지인과 관광객들 모두가 좋아하고 즐기는 장소다. 도시 경제와 관광 수입에도 큰 기여를 한다. 구경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곳은 역시 생물 시장이다. 신선하고, 오래 두면 상하는, 물기가 있는 상품을 다룬다고 해서 영어로는 '젖은 시장(wet market)'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시애틀의 시장에선 공산품이나 예술품을 취급하는 '마른 시장(dry market)'도 흥미롭다. 단지 빗자루나 그릇만 파는 게 아니라 포스터나 만화책, 피겨, 마술용품, 빈티지 상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100여 상점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노점상도 한 지붕 아래서 공존한다. 특히 시장 3층에 꾸며 놓은 회의실(The Goodwin Library)을 시간별로 임대하는 프로그램은 인근 회사들에 인기가 좋다. 회의 때 간식을 쉽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의 전후로 시장에 들러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의 많은 사람은 이 재래시장과 관계를 맺고 있다. 시장의 가치와 전통은 그 도시의 정체성 자체다. 디지털로 점령된 세상에서, 오프라인으로 공간의 힘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몇 남지 않은 장소 중 으뜸이 시장이다. 어느 도시의 제일 관광 명소가 시장인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뉴욕 FIT 교수·마이애미대 명예석좌교수

주사파·자주파에 휘둘리는 이재명 민주당, 종북 절벽으로 가나

뉴데일리 newdaily.co.kr

"NL 운동권은 부정·부패·조폭·양아치·도둑 떼" | 한국 좌파 병증은 말기… 민주당이 변해야 대한민국 살아

중병 걸린 한국 좌파

한국 범(汎) 좌파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대표하는 좌파냐, 다른 좌파냐?

이 내부 진통은 조국·윤미향·이재명·김남국·김의겸·송영길 등의 이름들이 신문 지면을 줄줄이 장식하면서 그들의 '종말 병'이 되었다. 뭐가 어떻게 됐나?

한국 민주화 운동·진보 운동은 처음엔 극좌도 아니었고 전체주의도 아니었다. [자유주의 + 민주적 진보주의 + 민족주의]가 뒤섞인 어정쩡한 절충론이었다.

△ 자유주의란, 우파적 '반독재 저항정신'이라 할 수 있다.
△ 민주적 진보주의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중도좌파라 할 수 있다.
△ 민족주의란, 넓은 의미의 민족적 자존의 정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의 정치·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유신·5공 권위주의를 거치면서, 운동권 일각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북한 김일성주의가 스며들었다.

북한 노동당이 장악한 한국 극좌파

1980년대 중반을 지나 '민주화 후의 민주주의'로 갈수록, 그들 극좌파는 다수파이자 주류로 떠올랐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들을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이 야금야금 먹어갔다. 어느 정도 먹었나?

▲ 세부적인 투쟁 구호까지 시시콜콜 북한문화교류국이 지령하고 있다. 자기들은 본사, 수령은 총회장, 남한 운동권은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하는 식이다.
▲ 운동권 안에는 소수지만, 주사파는 딱히 아닌 계열도 있을 수 있다. 좌파 안에도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 지령문은 자기들 추종자들만 '자주파'라며 부추기고, 다른 계열은 '개량주의'라며 배척한다.

[필자 주]
△ 자주파란, 공산주의에 입각한 반(反) 제국주의, 혁명적 반미(反美)주의를 뜻한다.
△ 개량주의란, 공산당 기준에서 볼 때 '덜된 자'란 뜻이다. 자본주의 세상을 깡그리 뒤엎을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고쳐서 쓰려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란 뜻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북한 공산당이 남한 운동권을 깔때기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 남한 운동권의 대북 독자성과 차별성이 급속히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같은 발전된 사회의 좌파 정당이 고작 북한 같은 후진사회 공산당의 영업 1부·영업 2부·영업 3부 노릇을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말이 안 된다. 원시사회 잣대로 선진 사회를 재단하겠다는 식이다.

80년대 운동권 화석이 혁신이라는 이재명

이런 해괴한 상황에 겹쳐서, [NL 운동권 = 부정·부패·조폭·양아치·도둑 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재명은 더 나아가,

△ 천안함 폭침을 자폭(自爆)
△ 지난 대선을 미국 정보조직이 개입한 것
△ 향후 100년엔 부(富)의 80%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한 친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려 했다. 이쯤 되면, 지금의 한국 좌파의 병증은 '말기'라 해야 할 것이다.

이낙연, 이재명 이길 수 있나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도덕적·정치적·법적·문화적으로 파탄한 주사파 운동권, 북한 노동당에 먹힌 운동권을 청산하고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된 문명국에 맞는 '합리적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귀국을 결정하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할 바를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으론 안 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이낙연 같은 젠틀맨이 과연 저 한없이 무식하고 악마적인 수구·꼴통 [종북 주사파 + 친중 + 친러] 세력의 온갖 흉위병 행패를 견뎌낼 수 있을까?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6월 6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34 Advertisement-type Article Series 광고형 기사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